

# 시청률 '복덩이' 임수향, 팔색조 매력으로 인기

### 악녀부터 착한 모습까지 변신의 귀재 '크리미널 마인드' 연쇄살인마 역 화제 "다양한 역할 씬 없이 해 보고 싶어"



“수향이는 복덩이예요.”  
‘아이리스’ ‘크리미널 마인드’ 등을 제작한 정태원 태원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얼마 전 한 말이다. 배우 임수향(27)을 캐스팅하면 어김없이 드라마가 전화위복하거나 큰 화제를 모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실제로 ‘폭삭 망한 기대작’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tvN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임수향이 연쇄살인마로 특별출연했던 에피소드만이 큰 화제를 모았고, 그가 부상으로 하차한 배우를 대신해 급하게 악녀 역으로 대타 투입된 MBC TV ‘불어라 미풍아’는 주인공 미풍이를 제치고 악녀 신애가 인기를 견인했다.

그렇게 강렬한 역할로 방점을 찍은 그가 180도 돌변해 세상 다시 없을 착하고 순한 모습으로 지난 6개월 시청자를 찾아왔다. 오는 10일 종영하는 KBS 1TV 일일극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타이틀 롤인 ‘무궁화’ 역을 맡은 그는 20%가 넘는 시청률 속에서 착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할머니들 중에서는 ‘불어라 미풍아’의 악녀 신애와 지금의 착한 무궁화를 같은 배우가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신애를 연기할 때는 저를 보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나쁜 것 하면 안된다’며 막 화를 내셨는데, 요즘에는 ‘아이고 무궁화네~’라며 굉장히 반가워하며 다가오세요.”

최근 광화문에서 만난 임수향은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 “일일극 고민도 했지만, 촬영하면서 너무 행복”  
신인 배우에게 일일극 주인공이 주어지면 낭물째 굴러들어온 복이지만, 임수향에게는 일일극 제안이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줬던 게 사실이다. 2011년 SBS TV 주말극 ‘신기생던’의 주인공으로 해상같이 데뷔해 청춘 미니시리즈에 전념해온 그에게 일일극 출연은 지금까지 걸려온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따듯하고 착한 데다 정 의로운 경찰 역이라 역할이 너무 좋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았어요. 연기를 앞으로 계속할 건데 길게 보면 다양한 역할,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하는 게 저한테 결국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어요. 지난 6개월 이 작품을 하면서 동료 배우들과의 작업이 너무 행복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 배우들과 맥주 한잔씩 하면서 일주일간 힘들었던 일 토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정말 너무 좋았다”며 “내게는 바쁜 와중에 완전한 힐링의 시간이 됐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한 뼉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불어라 미풍아’에 이어 그는 연타석으로 딸을 둔 엄마

를 연기했다. 스물일곱의 청춘스타로서는 이 지점에 걸릴 듯하지만 답은 의외였다.

“아역배우랑 같이하는 작업을 좋아해요. 시청자들이 대부분 여성분인데 아이와 같이 연기하면 모성애를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라고 그 지점이 고민이 안됐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깐 아이랑 같이 연기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번에 무궁화에 게 딸이 있는 것도 무궁화라는 캐릭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드라마는 사별한 남편 대신 경찰이 된 무궁화가 파출소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는 순경 연기를 하면서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전에는 경찰을 봐도 그냥 지나쳤는데 요즘에는 진짜 달리 보이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내 식구 같기도 해요. 순찰하는 분들도 보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아니까 정말 감사해요.”

◇ “인기 쫓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연기만 바”  
임수향은 스물일곱에 데뷔작에서 주인공을 맡았으니 계속 상승곡선만 그릴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다.

“중간에 연기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뜻대로 안돼 속상한 지점도 있고, 순수하게 연기만 하고 싶은데 다른 일들이 끼어들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연기를 그만두고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그만두겠다고요.”

그는 “14살부터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해 오디션을 보러 다녔고 데뷔할 때는 인기가 아니라 연기만 보고, 연기가 너무 좋아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려한 연예계 생활, 치열한 경쟁에서 마음을 다잡는 일은 쉽지 않은 않았다.

“연기만 보고 시작했음에도 어느 순간 반짝반짝 인기를 쫓을 때도 있었어요. 나도 인기를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씬 없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에요. 한때는 좋은 역, 마음에 드는 역만 기다렸지만 지금은 아니예요. 지난 3년 ‘아이 가다’부터 씬 없이 달려온 것도 연기만 봤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전에는 제법 날 좀 누가 불러주길 기다렸는데, 지금은 악역이든 일일극이든 저한테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오니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싶다”며 “열심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좋은 기회도, 좋은 순간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찬욱 감독, 영국 BBC 드라마 연출

### 6부작 '더 리틀 드러머 걸' 내년 촬영 돌입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2016)에 이어 차기작으로 영국 BBC 드라마를 연출한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박 감독이 BBC 드라마 ‘더 리틀 드러머 걸’(The Little Drummer Girl)의 연출을 맡는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리틀 드러머 걸’은 스미아 소설의 대가 존 르 카레가 1983년 펴낸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이종첩자가 된 여배우의 이야기가 영국과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펼쳐진다.



박 감독이 새로 연출하는 ‘더 리틀 드러머 걸’은 총 6부작 드라마로, 내년 초 촬영에 들어간다. 방영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작품의 주연은 지난 8월 개봉한 ‘레이디 맥베스’의 플로렌스 퓨(21)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1996년생인 플로렌스 퓨는 영화 ‘폴링’(2016)에서 모든 여학생의 우상인 ‘아비’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뒤 첫 주연 데뷔작 ‘레이디 맥베스’로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늙은 지주에게 팔려갈 열일곱 소녀 캐서린 역을 맡아 순수한 소녀에서 저택을 장악하는 여주인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표현해냈다. 그는 이 작품으로 더블린 국제영화제, 더블린 영화비평가협회상, 몬트클리어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박 감독 역시 개봉 당시 플로렌스 퓨에 대해 “지난 한 해 동안 만난 신인 여배우 중 가장 돋보였다”며 “여배우 보는 눈만큼은 나를 믿어달라”고 극찬한 바 있다.

# 이승기, tvN '화유기'로 안방극장 컴백

### 차승원·오연서와 연기 호흡

10월의 마지막 날 군대에서 전역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곧바로 손오공으로 변신한다.

tvN은 이승기가 오는 12월 23일 밤 9시 첫선을 보이는 주말극 ‘화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을 맡는다고 4일 밝혔다.



고대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는 ‘화유기’는 퇴폐적 악동 요괴 손오공과 고상하고 신사적인 요괴 우마왕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낭만 퇴마극이다.

‘미남이시네요’ ‘최고의 사랑’ ‘주군의 태양’ 등을 히트시킨 ‘홍자매’ 흥정은-홍미란 작가가 쓰고, ‘선덕여왕’ ‘최고의 사랑’을 연출한 MBC 출신 박홍균 PD가 연출한다.

이승기가 맡은 손오공은 화려한 스타일과 오만함으로 무장한 캐릭터다. 뛰어난 요력과 무술로 제천대성이란 칭호까지 받았으나 큰 죄를 짓고 요력을 봉인 당한 채 인간세계로 쫓겨나 살고 있다.

앞서 차승원이 우마왕, 오연서가 삼장 진선사로 캐스팅됐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 (재) 50 UHD 한식	50 마녀의 법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문화사색 5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팔도발상 스페셜	50 영화가 좋다	15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닥터 365
2	00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 토론	50 자동차부착성 위기 2	00 중계방송 바른정당 당대표후보 초청토론	00 중계방송 바른정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3	30 행복한 지도(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30 꾸러기 식과교실	35 맨 인 블랙박스
4	00 4시 뉴스집중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재) 35 숨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드라마에그 30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뉴스 40 별별머느리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발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0 제보자들	35 허하랜드 스페셜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소녀	00 사랑의 온도
11	10 월요기획 (인상, 세계를 매혹시키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정용성의 인생극장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생활의 발견	35 영상앨범 산	0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5 국제상 수상자 베스트 미래인간 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00 우주탐험가 젯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 <b>신상국지 1부</b> 신이 된 영웅 관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5:15 꼬마지마 마스코	20:40 다큐 오늘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b>연근매추리알장조림과 취나물볶음</b> )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살을 노래하라! 인도네시아 1부 적도의 꽃>
07:00 허준신이 과학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엄마 까투리	21:30 한국기행
07:3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두다다콩	<가을엔 노래기행 1부 영일민 친구>
07:45 출동! 슈퍼월드	12:10 글로벌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7:15 로보카 폴리	21:50 EBS 다크프라이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2:40 평등채널(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900개의 영혼, 파푸아뉴기니>
08:30 플라워링 하트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토	22:45 엄마를 찾자마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엄마를 찾자마(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23:35 까칠남녀
09:00 몬카토	14:30 레이디비그	19:00 로보 발명왕 라스티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24:30 세계의 드라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6일(음 9월 18일 丁酉)	
	48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60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72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84년생 불가피하던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96, 51		42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54년생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66년생 미리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래지시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78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라. 90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69
	49년생 사소하다고 여겨 왔던 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61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73년생 치밀한 분석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85년생 목적이 분명해야만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9, 90		43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55년생 의식하지 못한 부분이 허점이 있다. 67년생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79년생 유동적 기반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91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67, 53
	50년생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참아야 할 일이 생긴다. 62년생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74년생 외출을 삼간다면 면액해졌다. 86년생 자신의 마음먹은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어도 절대로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05, 11		44년생 매우 중차대한 일하므로 특별히 챙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56년생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 것이 안전하다. 68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하지만 괜찮다. 80년생 장소의 선정도 잘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23
	51년생 잠시 중단한 후에 면밀하게 판단할 일임을 분명히 알라. 63년생 하다가 조정하면 될 것이니 일단 시작해 놓고 볼 일이다. 75년생 방지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87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만이 해소되리라. 행운의 숫자 : 45, 63		45년생 결과를 내놓고 얘기 과정에 충실하라. 57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도량을 구축한다. 69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81년생 이타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18, 68
	52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다. 64년생 지난 번에부터 마음먹고 있었던 바와 어울려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76년생 무사태평하게 될 것이다. 88년생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9, 24		46년생 물이 사방에 보이나 모두 소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라. 58년생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내야 편하다. 70년생 당해 문제가 원할치 못하니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82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94, 86
	53년생 가장 가까운 이로부터 조언을 구해본다면 분명히 답을 얻을 수 있다. 65년생 겸손함과 겸손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77년생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89년생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덕은 데로 간다. 행운의 숫자 : 13, 57		47년생 지난 번 보다는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다. 59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도 있었으나 잘 활용해 보라. 71년생 지시보다 침착한 자세가 더 요청되는 때이다. 83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02, 3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